

『영미연구』

제55집 (2022): 95-128

<http://doi.org/10.25093/ibas.2022.55.95>

# 『갈매기의 꿈』: 철학적 갈매기의 비상과 제4부의 재발견, 그리고 텍스트의 재탄생\*

정길화

단독 / 영산대학교

## [국문초록]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인 조나단에 대한 의인화된 스토리텔링은 그림/사진 이미지들과 함께 각각 지면 속에 나뉘어서 펼쳐지는데, 고통을 수반하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모하는 신비한 변신의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마치 칸트 철학을 자연스럽게 읊조리는 조나단의 대화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칸트의 첫번째 질문으로 알려진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지적인 것에 대해서이다. 조나단의 철학적 비상은 그가 곧 처하게 되는 실존적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관념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더욱 전환하게 한다. 조나단의 우화는 현실 안주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의 표출이며, 홀로 우주에 던져진 존재로서 21세기 초인 오늘날 환경 위기의 극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학적 상상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험 서사이다. 『갈매기의 꿈』은 자아 탐험의 교훈을 전하는 서사로서, 또는 갈매기들의 모험담을 담은 우화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읽을 수 있다. 이 중편소설은 “가장 높이 날으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격언이 주제문으로서, 우선 그것이 지닌 절대 최상급의 심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영문판에서는 장식문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 격언이 갈매기 한 마리가 나는

---

\* 본 연구는 2022년 영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그림/사진 이미지와 함께 제1부보다 앞쪽에 사용된 것은 국내 번역판에서만이다. 이는 1973년과 1986년에 각각 새로 출간한 문예출판사의 번역본만의 공통점이다. 2015년 ‘완성본’에 이르러서야 한역 판에서도 이 장식 문장은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이 논문은 한영판 간의 글과 사진/그림 이미지 간의 구성상 불일치, 제4부의 재발견과 그 효과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주제어 : 철학적 비상, 실존적 상황, 자유의지, 절대 최상급, 불일치**

## 1. 철학적 갈매기의 비상

바크(Richard Bach)(1936- )의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1970, 2014(완성본)))은 우화의 성격을 지닌 중편소설로 읽을 수 있으며, 필자의 눈에도 그리 비친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Jonathan Livingston Seagull*)에 대한 의인화된 스토리텔링은 그림/사진 이미지들과 함께 각각 지면 속에 나누어서 펼쳐지는데, 고통을 수반하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는 신비한 변신의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극적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진지한 독자로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응답을 찾게 된다. 즉, 문학이란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기인식을 새로이 하고, 세상의 새로운 만남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입문소설(*initiation novel*)이나 성장소설, 또는 교양소설(*Bildungsroman*) 등으로 불리는 문학 작품들의 공통점은 자아의 탐색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인생이란 배움의 과정임을 제시하는 게 보편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빠와 깃털뿐이어도 상관없어요, 엄마. 전 다만 공중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인 걸요. 전 그저 알고 싶단 말예요」 ..... 「이거 봐, 조나단」 그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겨울이 멀지 않았단다. 어선들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수면의 고기들도 깊은 데서 헤엄치게 될 게다. 만약에 네가 배워야 한다면, 우선 먹이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배워라. 날으는 공부는 물론 대단히 좋지만, 그러나 황공이 널 먹여 주지는 못한다는 걸 넌 알지 않니. 네가 날으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덕희 역 15)

이 서사의 제1부 시작 부분에서부터 조나단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마치 칸트(Immanuel Kant) 철학을 연상시키는 이야기를 한다. 김용석 교수가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2000)에서 지적한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The Critique of Pure Reason*, 1781)의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지적인 것에 대해서이다.

칸트의 두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윤리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간주된다. 칸트의 세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바라도 되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바라도록 허가된 권리가 있는가?”는 거의 신학적인 질문으로까지 여겨진다. 마침내 이 질문들은 칸트의 『논리학』(*Logik*, 1800)의 토대가 되어, “칸트가 첨가한 ‘네 번째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앞의 세 가지 질문들이 모두 귀결된다고 했다”(김용석 336). 그렇다면, 의인화된 조나단이 거두게 될 ‘승리’는 인간 정신의 승리로써 ‘우리의 모든 경험 뒤에 숨어 있는 ‘본체의 세계’(Warbourton 112)로의 진입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계속도! 갈매기가 시속 344킬로미터로 비행하니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자,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는 홀로 연습했던 지역으로 가서, 2,400미터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위해 날개를 접고 곤장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낼 준비를 했다. (공경희 역 28)

칸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장 높이 날으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하는 주제문이 은유하는 바이다. 조나단은 “한계속도”를 넘어서 “새로운” 실행을 시도 하는데, 이는 칸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며, 조나단이 그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거둔 정신적 ‘승리’임을 내포한다. 칸트의 세 번째 질문과 그의 세 가지 질문을 모두 수렴하는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의 메아리는 이 서사가 지닌 종교적 은유와 상징이나, 특히 재발견된 제4부에서의 제도화된 의례와 우상화에 대한 작가/화자의 비판적 의식(공경희 역 109, 130-131), 비행 속도의 차원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공경희 역 70-71, 73)과 세대를 연이은 멘토/멘티로서의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들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재발견된 제4부의 추가로 인하여 새로이 피날레가 재구성된 이 서사는 제1부부터의 주제 상의 ‘중심부’(Pamuk 151-178)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제2부 설리반(Sullivan)과 찡(Chiang)의 지도하에 조나단의 성장과 떠남, 제3부 조나단의 귀환과 플레처(Fletcher)의 성장을 거쳐서 제4부 앤서니의 성장과 조나단과의 천상에서의 만남까지 쭉 일맥상통하는 구성적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제4부에서는 사회적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묘사되고, 앤서니라는 새로운 갈매기의 성장과 비행 수련을 담고 있다. 조나단, 플레처에 이은 새로운 갈매기 세대의 성장을 담은 이 우화는 연면히 이어지는 보편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곧 칸트에게 있어서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더불어서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세계시민적 사회(weltbürgerliche Gesellschaft)를 건설하는 것’(김용석 336)을 지향하고자 하는 작가 바크 내지 ‘명상’(공경희 역 58)을 통해 자아성취를 이룬 조나단의 사회적 메시지를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조나단의 기이한 행동은 일면 독립독행으로 보여, 그가 ‘추방자’ 신세가 된 것은 그 부산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그는 “사랑”(공경희 역 108)의 실천자이자 전달자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플레처에게 전수하고, 새로 재구성된 제4부에서 더욱 고착화된 ‘돌멩이’와도 같은 잘못된 신념, 즉, 고정관념을 훌훌 털어버리고 ‘또 다른’ 철학적 비상을 꿈꾸는 어린 갈매기 앤서니의 능동적 도전과 성공 비행이 암시하는 보편적 이

상의 추구이다.

일몰이 지나도록 계속 하늘을 날아다닌 조나단은 자신이 거둔 놀라운 성취에 도취되어, 곧 열릴 한밤중의 종교재판과도 같은 부족 회의에서 “중양에 서기”(공경희 역 29)라는 정신적인 심판대에 오를 자신의 운명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이제 조나단은 자신의 성공담을 동료 갈매기들에게 들려줄 심산으로 “우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수하고 지적인, 기술이 뛰어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 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공경희 역 29)라고 생각에 잠겨, 자신이 기필코 찾아낸 “살아갈 이유”(공경희 역 29)를 설파하려 한다. 이는 조나단이 칸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응답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며, 눈앞의 먹이에 얽매어 살아오고 있는 지상의 갈매기들의 삶에서 탈피한 용감한 비행 수련의 정신적 승리이다.

조나단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로서 다른 갈매기들에게 비행기술의 훈육과 전승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련을 통해 진정한 갈매기를, 각자의 안에 깃든 선함을 봐야 하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란다. 그것을 터득하게 되면 재미있을 것이다.”(공경희 역 108)라고 자신의 사도인 플레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조나단은 “수련”(공경희 역 108)의 과정에서 선과 악의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그 위험한 내면의 갈림길에서 비상할 수 있는 근원이 자신이 속한 갈매기 부족이 “배울 수 있도록 도울만큼 부족을 사랑”(공경희 역 108)에게 알린다.

잠시 후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며 빛나더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저들이 나에 대해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를 신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거라. 알겠지, 플레처? 난 한 마리 갈매기일 뿐이야. 나는 비행을 좋아하고 어찌면.....”

**“조나단!”**

“가여운 플레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게다.”

반짝임이 멈추었다. 갈매기 조나단은 텅 빈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한참 후 플레처는 몸을 끌고 하늘로 가서, 새로 들어온 수련생들과 마주했다.

그들은 설레하며 첫 수업을 기다렸다.

플레처가 진지하게 말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갈매기는 자유의 무한한 관념이며 위대한 갈매기의 상(想)이고, 날개 끝부터 날개 끝까지 몸 전체는 다름 아닌 너의 생각 자체일 뿐이다.” (공경희 역 109-110)

이제 영혼의 고양과도 같은 떠날 순간을 맞이하여 조나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단다.” 라고 하며 새로운 “스승”의 역할을 맡게 된 플레처가 갖춰야 할 덕목을 일깨운다. 즉, 이는 “몸”과 “생각”이 만들고 왜곡시켜온 과거로부터 현재에 안주한 데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자아를 “자유”롭게 형성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주창하는 것이다. 본래 이 서사의 피날레인 제3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나단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어렵사리 익힌 비행기술과 “스승”(공경희 역 109)의 역할을 플레처에게 전승한다. 바크는 조나단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하는 장면에 대하여, “잠시 후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며 빛나더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공경희 역 109)라고 신비로운 순간으로 묘사한다. 이는 앞서 제2부에서 조나단의 스승인 쳇이 ‘친절과 사랑’, ‘배우고 익히기’를 강조하며, ‘과거와 미래’의 시공간의 벽을 초월한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 후 사라지는 장면(공경희 역 73-74)과 비슷한 묘사이며, 세대를 이은 능동적 수련과 가르침의 전수, 시공 초월의 가능성 등 서사의 주제들이 제3부의 시작 부분에서도 공명하게 됨을 나타낸다. 1970년 영문판은 제3부로 구성되며, 조나단은 고도 비행의 수련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공간을 이동한다. 이는 2014년에 작가 바크가 집에 있던 제4부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 제4부작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 서사의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필자가 분석한 바로, 제4부는 자아실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짐과 작가로서 바크의 목소리가 더욱 호소력 있게 강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대칭적 구조가 더욱 강화된 서사로서 주제를 담은 중심부를 21세기 독자들

의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맞게 묘사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바,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 속에 함의된 칸트의 철학 체계의 성장과 발전, 완성단계에서 주체어로서 제시되는 지적,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 은유는 어린 조나단의 현실에의 도전과 자유 의지, 내면적 성숙과 비행의 완성, 멘토링과 의무 수행, 진정한 삶에 대한 숙고와 사랑, 동료 갈매기들에 비행기술과 시공을 초월하는 자아의 완성에 대한 깨달음 등에서도 일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서사구조는 『갈매기의 꿈』이 지닌 플롯의 형성과 서사의 전개로 제3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4부 원고의 재발견으로 새로운 피날레를 쓰게 된다. 즉, 2014년에 새로 출간된 완성본은 기존의 제2부에서의 천국의 발견과도 같은 갈매기 조나단의 자유 비행술의 훈련과 성취의 새로 추가된 제4부의 1970년 초판에는 빠져 있던 제4부를 재발견하여 서사적 대칭적 구조를 이루었다. 작가 바크는 전체 서사의 구성에 짜임새 있게 새로운 피날레를 구성함으로써 연면히 이어지는 인간의 삶의 의미, 즉 의인화된 갈매기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새로운 주장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재발견을 반영하여, 이 논문은 제4부를 포함한 2014년의 영문 완성판을 공경희가 한글 번역한 『갈매기의 꿈』(2015)을 주로 인용할 것이다. 그 이전의 영문초본과 한글 번역본의 인용은, 문예출판사의 두 번역판인 정현종 역(1973)과 이덕희 역(1986)을 이 논문의 텍스트 비교 분석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인용할 것이다.

## 2. 절대 최상급, 대칭적 구조, 구성상의 불일치

앞서 언급하였듯이, 바다 갈매기 조나단은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칸트의 첫 번째 질문과도 같은 “전 다만 공중에서 제가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이덕희 역 15)라고 말하는 것으로 짐작하건대, 칸트주의자의 면모와 기질을 보여준다. 한편, 조나단의 아버지는 마치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짚이」의 교훈처럼, 미리 겨울나기를 준비하지 않고 여름날의 놀이에 사로잡힌 베짚이가 이제

막 닦친 겨울에 먹을 게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매우 현실적인 충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 구조의 서사라면, 이태동이 지적하였듯이, 종교적 상징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성직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종교적 비판을 하였다면 과연 독자들은 개인 내면의 성장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 추구를 중심부로 한 이 성장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조나단이 그의 어머니가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리도 힘들단 말이나, 존?...넌 도대체 왜 먹지를 않니?...”(이덕희 역 15) 라고 묻는 데 대한 그의 응답은 작가가 마치 칸트식 철학적 의도를 자신의 창의적 글쓰기의 은유로써 사용하고 있음을 작품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다. 같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1986년의 이덕희 번역본보다 앞선 1973년의 정현종 한글 번역판에서 이태동은 이 우화가 성직자들에 의해 기독교의 7대 죄악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오만의 죄」로 가득하다고 비난받았음을 지적하였다.

성직자들이 「오만의 죄」로 가득찬 책이라고 비난한 이 작품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으나, 아직 그것의 문학사적 가치는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품이 미국문학사(美國文學史)에서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소년단장 같기도 하고 성(聖) 바울이나 전폭기 조종사 같기도 하다. 제1부에서 실제로 그는 이웃 마을의 한 마리 갈매기다... (정현종 역 117)

6세기 초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해 규정된 「7종죄」 중에 첫 번째 죄목이라면, 작가 바크나 바다 갈매기 조나단을 비롯한 등장인물들, 그리고 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가 쓴 자아성취의 서사에서 어떤 점이 문제시되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 이태동이 지적한바, 이 서사의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세 차례에 걸쳐 20,0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전도 여행을 떠난 “성 바울”이나, 또는, 속(俗)의 세계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야 하는 “전폭기 조종사”의 혹독한 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최고의 비행기술 시도로써 「오만의 죄」와 관련될 수 있는 주제문을 다루고자 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다 갈매기의 여러 문장들이 서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문은 한글 번역판에서만 따로 두 번째 서언으로 인쇄되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Complete 60)이다. 독자들은 일견 간단하게 보이는 한 문장에서 놓치는 영문법상의 최상급의 비밀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서사가 지닌 바다 갈매기 조나단의 극한투쟁과 자기성취의 힘들고 외로운 과정에 대해 가장 중한 「오만의 죄」의 형벌을 받는 데 일조한다면, 이는 과연 타당할까?

영어 문법의 심층 구조에 대한 원어민 독자와 번역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 독자들 모두의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영문판에는 서사의 중심부로 자아성취의 주제를 현실 만족보다는 이상과 자유 추구를 상징하는 바다 갈매기 조나단의 극한도전의 문장이다.

“존, 예전에 너는 추방자였다. 왜 이전 생의 어느 갈매기가 이제 와서 네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격언을 알겠지. 그건 사실이야. 네가 떠나온 갈매기들은 껍딱대고 서로 아우다웅하며 땅바닥에 서 있어. 그들은 천상에서 아주 멀리 있건만 너는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천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공경희 역 75)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영어의 최상급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 최상급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선 고급의 영문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자들은 영문법상의 최상급을 상상하고선 단 한 마리의 최고 갈매기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법에는 절대 최상급이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he+형용사 최상급>으로 묘사할 경우, 어느 비교 대상들을 상정하고 자기와 타인들, 자기와 타자들을 비교하여 비교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최상급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달리 주관성을 강조하는, 주관적 진실을 내포한 절대 최상

급의 표현 또한 영어에서 또는 다른 언어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컨대, “She is most beautiful.” 은 “She is the most beautiful.”과는 관념이 다른 표현이다. 전자는 “그녀는 (내가 보기에) 매우/가장 아름다워”이며, 후자는 “그녀는 (남들보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그런데, 미의 기준이 보는 이의 관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주관적인 표현인 절대 최상급이 당연히 맞을 것이다. 이처럼 정관사 “the”를 사용하지 않는 최상급의 표현일 경우, 이는 절대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발화자의 주관적 입장과 감정을 표현한다. 이처럼 절대 최상급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정관사 “the”를 사용한 상대 최상급은 그 본질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고등영문법』(정호영 449-5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절대 최상급은 비교 대상을 설정하지 않은 표현으로, 단지 발화자의 절대적 감정이거나 느낌이라는 주관적 표현일 따름이다. “매우~...한”, “아주~한”의 뜻을 지닐 수 있는 형용사, 명사, 부사 등에서 한계를 지우는 정관사 “the”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로 사용된다. 이는 라틴어 계열의 언어구조에서 형용사가 사용될 때 형용사 자체의 어미 변화로서만 비교급, 최상급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영어 사용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교급, 상대 최상급만 존재하는 게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우화가 지닌 숨겨진 진실 코드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의인화된 스토리텔링인 이 우화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격언은 조나단의 자아 신화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강조된다. 이 작품의 중심부를 제시하는 이 문장의 경우, 영어 완성본 이전의 두 가지 번역판 서언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로 일반적인 번역으로 되어있다. 이는 사실,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작가 바크가 작품에서 주제를 반복하여 제시하듯이, 어느 비교 대상을 상정하고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기계적인 메시지와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를 오역 내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해한다면, 독자들은 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칠 수 없다. 이 작품의 여러 곳곳에서 설리번이나

조나단, 또는 플레처를 통해 수련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듯이, 기계적인 속도나 속도 경쟁의 상대방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자기 내면의 본성과 자기훈련의 완성이라는 극히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철저하고 간절한 수련의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에 비교 대상은 따로 없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의 구현은 자기 자신의 완성일 뿐이다.

만일 비교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다면, 당연히 최상급 앞에 정관사를 써야 한다. 작가 바크가 “The gull sees the farthest who flies the highest.”라고 정관사 “the”를 포함한 상대 최상급을 쓰지 않은 이유는 진정한 배움, 또는 참된 수련이란 번역될 수 있는 “learning”은 상대방과의 외부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대결임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속도를 재고 다른 갈매기보다 앞서는 차원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닌 한계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갈매기의 묘사는 작품 어디서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독서행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구성된 서사이다.

조나단은 홀로 정신적 자유를 찾아 홀로 광활한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며 긴 날개를 지닌 갈매기로서 자신의 비행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 안주와 “더 이상은 도전도 실패도 없을”(공경희 역 23) 경우를 수긍하지 못한다. 바다 갈매기 조나단은 잠시 “올빼미의 눈”(공경희 역 23)이나 “매처럼 짧은 날개”(공경희 역 23)를 갖지 못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알려주는 어둠 속의 목소리를 자기인식으로 깨닫게 된다. 또한 “한순간도 실패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공경희 역 23) 낮에만 긴 날개 짓을 통해 활동해야 하는 갈매기로서의 비행기술사용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속도와 순간적 변화 부족에 대한 불안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생각을 떠올린다.

조나단은 또한 갈매기들이 새로운 비행기술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멘토의 책임감을 지니고도 있으며, 조나단과 플레처,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제4부의 앤서니가 각각 생각 사의 갈길짐에 맞닥뜨리며 완전한 속도에 이르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묘사가 나타내듯이, 애초에 칸트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던 조나단은

사회적 “추방자”(공경희 역 75) 신세가 된다. 의인화된 조나단은 홀로 밤늦도록 새로운 비행기술을 연마하여, 매우 “어지럽고 몹시 고단”(공경희 역 29)한 상태로 묘사되는데, 이 우주에 홀로 던져진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나 조건을 나타낼 수 있다. 조나단이 자신이 속한 갈매기 무리에게 보여주려는 “천국”(공경희 역 29)은 단지 환상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시공간이 아니다. 이제까지 불안 속에서도 바닷가에서의 먹이 찾기 행위로 각인되는 현실 안주의 갈매기들의 삶에서 벗어나, 물질적 고정관념과 정신적 불안을 없애고, 새로운 미래와 자아의 완성을 상징하는 놀라운 비행의 숙련 과정이다.

마치 칸트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을 찾아 나서는 지적 모험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조나단은 그의 제자인 플레처가 겪게 되는 추방자 신세를 목격하고, “난 순수한 추방자가 될거야. 그리고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공경희 역 77-78)라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잘 달랠다. 비행에 대한 순수한 동기는 새로운 혁신, 새롭고 힘든 비행기술의 ‘숙련’을 동반하기에 갈매기의 본성을 찾는 목적으로 타당하다. 플레처에 대한 조나단의 조언은 칸트의 정언 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함의한다.

비행의 실제 경험은 이 철학적 갈매기들인 조나단이나 플레처를 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실존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들 의인화된 갈매기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존재로서 ‘자유’ 비행을 추구하며, 불안한 삶을 자유 선택한 것이다. 이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은 마치 우주 속에 버려진 존재처럼, 홀로 한없이 넓은 바닷가를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려는 자유 의지를 지닌 갈매기의 경우에 대하여 독자들은 더욱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의 번역자인 박정태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식, 자유, 불안, 그리고 “인간 실존 그 자체”인 자유가 대자(Pour-soi)라는 의식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Moses)가 들은 “I am who am.”(Freeman 73) 또는 “I AM WHO I AM”(Exodus III(v.14), NIV Bible 51)이라는 하느님의 대답에 나타난 즉자로서의 자기 정체성(I AM has sent me to you.)(Bible 51)에 상치(相馳)되는 대자인 인간의 실존일 것이다. 즉자의 완전성은 영어 대문자로 표기한다.

대자Pour-soi : 의식의 존재를 말한다. 대자의 존재 방식은 즉자의 존재 방식

과 반대된다. 왜냐하면 대자는 그 자신이 아닌 어떤 것으로서, 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무엇이 아닌 어떤 것으로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무엇과 일치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실존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 124)

자유liberté ;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인간 실존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되거나 결정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어떤 한 속성으로서의 질이 아니다. 자유는 인간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자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그가 이처럼 전적으로 자유로운 한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따라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자유가 불안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르트르 125)

실존적 상황에 처한 인간은 대자로, 불안 속에서도 선택적 삶에 대한 자유 의지를 표출한다. 이에는 ‘책임’이 따른다. 『갈매기의 꿈』은 이카로스 콤플렉스(Icarus complex)에 사로잡힌 조나단이 지나치게 자기 확장을 추구하는 이야기로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개츠비의 꿈과 환상(김옥동 253-54)을 연상하는 셈이다.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밀랍의 날개를 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선 이카로스 신화 또한 최고의 비행을 추구하는 조나단의 자유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 결과는 비극적 추락과 익사할 뻔한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후자의 경우는 비행 속도의 극한추구가 ‘본체적’ 세계로의 능동적 진입이라는 상징성을 떨 수 있다. 이처럼, 『갈매기의 꿈』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와 비슷하게, 『어린왕자』(*A Little Prince*)를 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 Exupéry)의 비행 조종사로서의 실제의 삶과 그의 동화 속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마치 어느 별에서 온 그에게 새로운 행성인 지구의 숨겨진 곳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에서도 그 배경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모험심과 그렇게 실행할 가능성과 용기를 담고 있는 자아성취 신화의 공통점을 우리는 『갈매기의 꿈』

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한때 그가 갈매기때 전체를 위해 기대했던 것을 이제 그는 그 자신만을 위해 획득했다. 그는 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자신이 지불했던 대가를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권태와 공포와 분노가 한 갈매기의 삶을 그토록 짧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생각에서 이와 같은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오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공경희 역 39)

갈매기 한 마리가 “바람을 가로지르는”(공경희 역 39) 청록색의 그림/사진 이미지를 사용한 한글 완성본은 책을 펼쳤을 때 책을 펼치면 오른쪽 홀수 페이지에 글이 있는 반면에 영어 원본은 왼쪽인 짝수 페이지에 글이 이어서 좌우의 글/그림의 위치가 상반된다. 한편 본문의 경우, 제1부의 끝 장면은 조나단과 두 마리의 갈매기의 조우와 이들의 눈부신 비행의 출발점을 알리며 시작한다.

그리하여 저녁 때 그들이 왔다. 그들은 조나단이 자신의 사랑하는 창공을 꿰뚫고 혼자서 평화롭게 활공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날개 양쪽에 나타난 두 마리의 갈매기는 별빛처럼 순결했으며,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광채는 밤의 고공에서 부드럽고 친근하게 빛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멋진 것은 그들의 날개 끝은 조나단으로부터 꾸준히 정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톤은 별처럼 빛나는 두 갈매기와 더불어 완전히 캄캄한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덕희 역 50-51)

조나단이 이들 두 갈매기들에게 여러 가지 자신이 완성한 비행의 기술을 시험해 보았으나, 이들은 이를 모두 숙련된 자의 기술로 잘 호응을 하여 완급을 조절함을 보여주는 과정이 위 중간의 생략된 서사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바, 초판본인 정현종 역의 경우, 거의 한쪽 분량을 이들 두 갈매기랑 직접 관련이 덜한 사진 그림들보다 앞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이 세 마리 사진 그림 바로 앞쪽에 두어야 할 거의 두 쪽 분량의 번역 서사를 3분의 1 정도로만 기술하고 3분의 2 이상인 한

쪽 이상(37-38쪽)의 분량을 세 마리 갈매기의 비행 사진과는 동떨어지게 잘못 구성해 놓은 것이다. 정현종 역은 아래 인용문 부분만 세 마리 갈매기의 비행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조나단, 너는 배웠으니까 말야. 한 가지 공부가 끝나고,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할 때가 온 거야.」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두 별처럼 빛나는 갈매기와 함께 몸을 떠올려 완전히 어두운 하늘로 사라졌다.  
(정현종 역 48)

이덕희는 2인칭 존칭어인 “당신은”으로 번역을 시도한 반면, 그 이전 번역서인 정현종은 반말로 번역을 한 것이 또한 두 번역서 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1부 마지막 서사는 이덕희 역본에서는 완성본 원서에서처럼 줄곧 이어지지만, 정현종 역은 그렇지 않고 그림/사진 이미지에 의해 끊어진 채 그 뒤에 이어지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바, 이런 경우에는 영어 원저에서 작가 바크와 사진작가 문손(Russell Munson)이 본래 의도했던 구성상의 방법과 차이로 독자가 이 서사와 사진 이미지의 세계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갈매기의 꿈』은 독자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사진 이미지를 따로 수록하고 있다. 이는 바닷가 풍경 속에 살아가는 갈매기의 행동 양태와 비행의 모습을 사진작가인 문손의 뛰어난 사진작품들로 스토리텔링의 글과 함께 일종의 그림 책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갈매기의 꿈』은 내러티브가 지닌 주제와 스토리텔링을 시각적 효과를 통해 극대화하였다.

“설리, 부끄러운 말씀 마세요! 어리석게 굴지도 말고요! 우리가 매일 수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정이 공간과 시간 따위에 좌우된다면, 우리가 마침내 시공을 초월할 때 형제에는 없어서버렸을겁니다! 하지만 공간을 초월하면 ‘이곳’만 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지금’만 남지요. 그러니 ‘이곳’과 ‘지금’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번은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공경희 역 76)

한편 제2부에서 조나단의 멘토인 설리번과 함께 또 다른 동방의 신비를 암시하는 듯한 새로운 스승인 쳇의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장자의 교훈을 배우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쳇에 따르면 조나단은 자신을 폭 1미터의 날개가 달린 제한된 몸뚱이에 갇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을 중단해야 했다. 그의 진정한 본성은 기록하지 않은 숫자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초월해 어디에서나 살고 있음을 아는 게 비법이었다…쳇이 반복해서 말했다.

“신념은 잊어버려! 나는 데 필요한 건 신념이 아니라, 비행을 이해하는 것이었지. 이것도 똑같다네. 이제 다시 해보게…….”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해변에 서서 눈을 감고 집중하다가, 문득 쳇이 계속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 맞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그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희열을 느꼈다.

“잘했네!”

쳇이 득의만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공경희 역 71-72)

제2부의 서사의 전개는 조나단의 숙련과정을 담고 있으며, 제3부에서 조나단의 여러 제자 갈매기들이 그를 비행의 달인, 또는 사부이자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성취와 나와 타인의 사회적 관계 발전의 내용을 담은 스토리텔링은 제3부에서 조나단과 사제지간인 플레처에게 그의 사회적 역할을 작가의 목소리로 전달하며 동시에 조나단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으로 끝맺음을 하였다. 이것이 2014년에 나온 완성판 이전의 서사 구조이다.

제3부에서 조나단의 귀환과 그의 스승인 설리번과의 정신적 문답(공경희 역 76), 그리고 스승으로서 플레처에 대한 가르침(공경희 역 78)을 통해, 조나단은 이제 칸트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 셈이다. 그리고 천상으로의 떠남에 이어서 제4부의 앤서니의 등장과 성장, 천상에서의 조나단과의 재회 암시로 과연 의인화된 갈매기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작가 바크는 새로운 서사의 피날레 부분을 통하여 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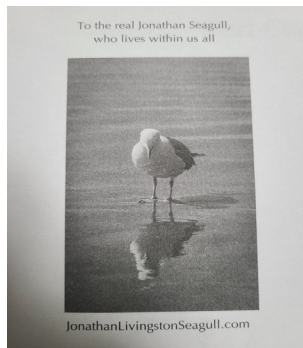


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인공인 어린 앤서니가 새로 등장하게 되는 제4부의 발견과 재구성으로 이 서사의 전체 구성은 더욱 짜임새 있게 연결되며, 의인화된 갈매기들의 철학적 비상과 죽음의 실존적 위기에 처한 극한 상황들, 끊임없이 지속적인 자기 수련의 필요성 강조는 제4부에서 더욱 구체화된 사회적 메시지를 더욱 담고 있다. 자기 수련의 바다 갈매기들의 비행 장면을 담은 그림/사진 이미지들과 함께, 이 구성적 요소 재발견과 새로운 피날레는 전체 서사의 대칭적 구조, 즉 이 서사가 지닌 스토리텔링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조나단 뿐만 아니라 플레처나 앤서니라는 어린 갈매기 또한 나르키소스가 상징하듯이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유 비행을 추구한다.

“모든 이의 내면에 깃든 진정한 갈매기 조나단에게 바칩니다.” (공경희 역 9)

이 현사는 2014년 영어원본에 다음과 같은 그림/사진과 함께 나와 있다.



『갈매기의 꿈』(1973, 1986)이란 원저와는 다른 제목으로 문예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온 *Jonathan Livingston Seagull*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제4부의 재발견을 포함하여 2014년 10월 21일 스크리브너(Scribner)에서 새로이 출간하였다. 위 현사는 원본

에서 “To the real Jonathan Seagull, who lives within us all”이라고 쓰여 있다. 이 완성본에 대한 국내 번역판은 2015년 10월30일 영문학 전공의 번역전문가 공경희 역으로 독점 출간하게 된다. 이 판본은 또한 2018년 6월 1일 나무 옆 의자에서 출간된다. 완성본은 또한 나르키소스처럼 자신의 모습이 비친 물그림자를 바라보는 해변의 갈매기 사진이 새로 삽입되어, 위의 헌사 바로 아래에 실려 있다. 자기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어느 갈매기 한 마리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인터넷상의 웹 주소가 삽입되었다.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환경오염의 재앙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초의 달라진 사회의 상황과 그로 인해 시각적 상상력에 더욱 초점을 둔 신세대 독자들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이처럼 자아 탐험의 교훈을 담은 서사로서 또는 갈매기의 모험담을 담은 우화로서 읽힐 수 있는 『갈매기의 꿈』은 위 헌사(정현종 역 5, 이덕희 역 7) 내용의 책갈피를 한 장 넘기면, “가장 높이 날으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정현종 역 7, 이덕희 역 9)라는 표현이 갈매기 한 마리가 나는 그림/사진 이미지와 함께 쓰인 것은 이처럼 국내 번역판에서만이다. 반면에, 완성본 영어원문의 경우에는 이 격언이 사진/그림 이미지에 따로 표기된 바 없다. 이는 1970년판 초판부터 1986년의 이덕희 역으로 새로 출간한 문예출판사 판본의 경우, 공통점이다. 제4부를 재발견하여 새로 현문미디어에서 출간한 2015년 완성판에 이르러서야 헌사 다음의 이 유명한 격언이 스토리텔링 속에서만 나오고, 소설 전개 이전의 장식 문구로는 제외되었다.

국내 번역판은 마치 미국판이 본래 영국판에서는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이었던 것과는 달리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즉, ‘마법사의 돌’을 강조하여 상업적 효과를 노렸듯이, *Jonathan Livingston Seagull*을 『갈매기의 꿈』으로 제목 번역을 설정하였고, 또한 이 자아성취의 성공신화를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나하나의 미시적 분석보다는 이 격언 하나에 모든 주제가 집약되어, 독자들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는 대성공이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를 개인적 자아완성을 위한 깨달음이나 사회적 자아성취의 희망과 꿈을 담은 서사로 독자 개개인에 따라 달리 수용하고

있을 것이다. 종교적 상징과 암시, 또는 신의 창조물 중에 영혼과 연관이 없는 짐승에 대한 오만의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있다. 하지만, 종교적 은유와 상징, 인간과 다른 신의 창조물의 구별 논란보다는 개인 심리와 노력, 사회적 역할 등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혼의 노래로 이 “갈매기의 꿈”이란 제목과 그리고 그 속에 헌사 다음의 위 격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이는 *Jonathan Livingston Seagull*이라는 영화/비디오와 그 속의 “존재(Be)”라는 가수 닐 다이아몬드(Neil Diamond)의 OST 노래 등에 대한 철학적, 감성적 수용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문화에서도 인간 존재의 심연에 대한 칸트의 네 가지 질문은 보편성을 띠고 잠재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칸트 철학의 네 번째 질문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반영하는 현실적 상황과 오늘날의 그것은 다를 수 있을 뿐이다.”(김용석 339) 하지만 인간에 대한 질문, 즉, 의인화된 갈매기 조나단의 능동성은 “우주로부터 인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이 오게 되면 그 동일한 질문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을 흡수하던가 아니면 그 차원에 흡수될 것이다”(김용석 339).

‘챙’이란 동양인 사부 이름이 암시하듯이 중심부를 이어가는 격언에 대한 해석은 세속적 성공이나 자유, 꿈, 희망의 성취, 또는 동양사상의 하나로 『장자』의 첫머리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큰 새로 변하여”에 나오는 신화적 이야기가 지닌 자기혁신의 주제와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자』의 제1편 소요유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서사의 “전체의 주제이며 가르침의 궁극 목표”(장자, 25)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鯁)이라 하였습니니다. 그 크기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이름을 봉(鵬)이라 하였습니니다. 그 등 길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에 드리운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뿔뿔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 못(天池)’이라 하였습니니다. (장자 26)

여기서 봉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 그리고 그 거침없는 비상은 이런 ‘변화’나 ‘변혁’을 이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초월’을 상징한다. 『장자』의 첫머리는 이처럼 인간이 생래적으로 지닌 실존적 한계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는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다. (장자 27) 반면에 서양인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관점에서 볼 때, 갈매기 조나단의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은유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Saint Thomas Aquinas)의 지혜와 사상을 담은 이야기(Freeman 92-93)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4부는 제2부에서 홀로 새로운 비행술의 습득의 힘든 훈련과정을 마다하지 않는 조나단이 그 과정에서 끝없이 흔들리 나면서도 마침내 자기 인내의 결실로써 천국 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과 다른 두 갈매기의 등장과도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4부에 새로 등장하는 앤서니(Anthony)가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마지막에 조우하는 존(Jon)은 과연 누구일까? 제2부에서의 조나단이 저 멀리 높은 창공에서 마주하던, 새로운 천국 같은 세상과도 같은, 또는 칸트의 ‘본체적’ 세계로의 진입을 암시하는 존재나 영혼의 대변인일까?

『갈매기의 꿈』의 한국어 번역판은 1973년 1월 10일에 철학과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현중 역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이 판본은 1983년 6월 30일에도 중판되었으며, 이후 1986년 12월 30일에서야 법학과 출신의 자유기고가인 이덕희의 신역판으로 새로이 번역되었다. 이는 거의 14년 만에 새로운 “한글세대들의 언어 감각에 맞추어……독서의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살린 편집으로 신역판(新譯版)을 출간하는 바입니다.”라고 문예출판사에서 이 책의 끝머리에서 밝힌 바 있다.

번역은 진화의 과정이다. 이 책의 원고는 작가에 의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오랜 세월 버려둔 제4부가 발견되는 드문 경우로서, 이를 포함한 완성본의 번역 또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래 영어판은 1970년에 출간되었으며, 이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제외했던 원고를 집안 정리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작가 바크는 오랜 세월 집안

구석에 둔 채 잊고서 지낸 제4부의 원고가 새로이 변모하는 세상에 오히려 더욱 적절한 내용임을 알아채고선, 2014년 10월에 새로이 출간한 완성본에 제4부를 작품의 피날레로서 신게 된다. 이는 한 작품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는 큰 변화를 수반하는 서사구조의 재구성이다. 존재, 본성의 의미나 절대적 자유의 추구를 담았다고 해석되어 온 이 작품의 대단원은 그것이 지닌 새로운 의미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60년대 말, 70년대로의 전환기에 나온 『갈매기의 꿈』 영어판이 21세기 초에 이르러 어떤 사회변화를 겪어왔고, 이 세대 인간들의 삶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것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측면의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기에 그러한지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실제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서사구조의 추가, 확장, 새로운 결말을 수반하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 즉, 다각적인 결말을 독자 스스로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열린 결말과는 달리, 바크의 개인 비행과 착륙 과정에서의 충돌로 인한 실제의 경험과 21세기의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저 멀리, 그리고 저 높아서 시간과 공간의 객관적 거리를 두고 바라다본 작가의 사회적 메시지가 함의된 이 새 구조의 피날레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서사 구조상의 완전성을 새로이 창출할 수 있을까?

이 신역판을 펼치면, 갈매기들이 나는 시각적 효과의 두 번째(17마리의 갈매기)와 세 번째(13마리의 갈매기) 사진 장면은 새로 추가된 것인데, 이는 첫 번역본에는 빠져 있다. 이 사진들은 또한 2014년 10월에 스크리브너에 의해 출간된 완성본에는 수록되어 있는 사진들이다.

### 3. 제4부의 재발견과 취사선택의 문제

20세기 미국 소설가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자신의 대표적 중편소설인 「에밀리에게 장미를」(“A Rose for Emily”)의 전체 5부에서 제4부의 마지막 부분을 초판에서 삭제하였고, 이제

까지 변화 없이 잠재워 놓았다. 물론 작가가 이미 작고한지 오래되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작가 바크는 그가 이미 3세대의 이야기로서 조나단이 떠나는 장면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던 1970년 영문본의 서사가 완결된 형식으로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바크가 제4부에서 묘사했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이나 젊은 갈매기 앤서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례나 「에밀리에게 장미를」에서 독신 백인 여성 에밀리의 집안의 내밀한 비밀과 흑백 인종을 넘어서 흑인 하인과 그녀의 사후 유산 상속문제 논의(Polk 23-24 참조) 등 사회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내용의 표출을 배제하였던 건 무슨 이유일까? 젠더 문제와 흑백 인종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복잡미묘한 미국 남부사회의 남녀, 흑백 문제로서 존재해 왔고 서로 얽혀 있다. 아마 포크너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서 이를 재수정하여 서사 구조에 맞게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크너의 경우엔, 에밀리의 내면 의식과 시간의 원형구조를 완성한 서사에 이를 사족처럼 흠뜨리는 역효과를 피하고자 제4부의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무엇보다도 포크너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에 집중하였기에, 복잡미묘한 남부의 젠더/인종 문제가 등장인물들의 기이한 행동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 실존하던 남부의 소외된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행동의 구체적 묘사보다는 그들의 실존적 상황과 내면 의식의 기괴하고 비밀스러운 속에 서사의 완결성과 사회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바크의 경우, 조나단의 이야기는 자신의 멘토인 설리반이나 쉐вро로부터 자신이 전수한 비행 기술과 비법의 능동적 자기발견의 수련 과정이 그다음 세대인 플레처에게 이어지고, 이 젊은 갈매기가 다시 다른 갈매기 떼를 이끄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적 완결성을 이루었다고 작가가 생각했을 것이다. 이는 1970년 영문판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며, 이후 21세기 초까지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을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더욱 강한 사회적 메시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21

세기 초의 급변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우연찮은 제4부의 재발견은 2014년 영문 완성본에서 바크가 비행 중 겪었던 구사일생의 경험이 담겨있다. 제2부에서 스승인 설리반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눈앞의 먹이를 구하는 현실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조나단은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관념, 즉, “그가 뼈와 깃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거슬릴 것 없는 자유와 비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관념”(공경희 역 77)임을 깨닫고, 자아의 정체성을 ‘수련’을 통해 갖추어 간다. 조나단은 칸트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능동적 응답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육체적 한계를 넘어 정신적 도전과 비상을 통하여 시공을 초월하려고 한다. 조나단은 칸트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나아갈 방향을 자신의 후계자인 플레처에게 ‘아주 부드러운 소리’(공경희 역 78)로 전해준다.

“그들에게 심하게 굴지 말거라, 플레처. 너를 추방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아프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테고, 어느 날엔가 그들은 내가 아는 것을 알게 되겠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깨우치게 도와주거라.”(공경희 역 78)

행에 따르면 조나단은 자신을 폭 1미터의 날개가 달린 제한된 몸뚱이에 갇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을 중단해야 했다. 그의 진정한 본성은 기록하지 않은 숫자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살고 있음을 아는 게 비법이었다. 스승인 설리반과 헤어지는 장면에서의 대화에서 “뼈와 깃털로 만들어진” 자신의 현실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관념, 즉, “자유와 비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관념”(a perfect idea of freedom and flight, Bach 61)로서의 자아의 정체성을 갖추어 간다.

...“잘가게, 내 친구 존.”

“안녕히 계십시오, 설리.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조나단은 다른 시간대의 해안가에 잔뜩 모인 갈매기들의 이미지를 생각 속에 떠올렸다. 그는 수련 덕분에 쉽게 알았다. 그가 뼈와 깃털로 만

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 거슬릴 것 없는 자유와 비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관념  
이라는 것을. (공경희 역 76-77)

바다 갈매기 조나단의 눈부신 비행을 아름답고도 사실적인 사진/그림 이미지와 함께 서사로 담은 이 이야기는 나르키소스의 이미지로 헌사로 하여 제1부의 시작을 새로운 태양이 뜨는 아침 광경으로 묘사, 이어지는 자아 신화의 전개와 함께 눈부신 갈매기들이 완벽한 어두운 창공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으로 끝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부는 “이게 천국이군”(공경희 역 53)을 새로운 서사의 전개 공간으로 하여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광경들은 조나단의 자기 수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천국을 분석하여 묘사한다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간주 될 위험이 있다. 그간의 힘든 비행기술 습득과 이를 통하여 자유로운 영혼의 고양과도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 조나단은 사회적 추방자임에도 곳곳이 그를 배타적으로 대한 갈매기 부족들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가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던 곳에서 그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었다” (Bach 58). 설리번은 조나단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서사의 전개 내용은 조나단이 공동체 의식은 부족하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구 벗어나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의 영달이나 성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등장인물로 읽힐 위험이 내재된 서사이다.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 이래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아퀴나스의 종교적 신념 (Freeman 92-93)으로 자리잡고, 칸트에 의해서 전제된 영혼불멸설은 왜곡된 공동체 의식으로 인해 그 본래적 의미가 퇴색한다. 조나단은 자신의 멘토들로부터 전수받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지혜와 비행기술을 그의 후예들에게 전수하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제3부에서 조나단은 플레처에 대한 훈육과 지도뿐만 아니라 또 새로 재발견한 제4부에서 어린 갈매기인 앤서니가 성장하여 그를 천국에서 상봉하는 장면으로 이 서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런 서사구조는 아마도 단테(Dante Alighieri)가 지옥과 연옥의 험난한 영혼을 여행을 거쳐서 마침내 그의 이상향인 베아트리체체의 영혼을 빛으로 가득 찬 천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었던 『신곡』 (*La Divina Commedia*) (박



상진 역 239-304)의 서사구조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소환한 것일 수도 있다. 공경희는 “새롭게 더해진 4장에서는 조나단이 떠난 이후 갈매기 부족이 그를 신격화하고 더 이상 비행 연습을 하지 않는 풍경이 펼쳐진다. 예수의 사후 이 세상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대목은 큰 가르침을 얻어도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인간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공경희 역 157)라고 지적하였다. 가장 위대한 갈매기라든지 또는 플레처의 일곱 제자 갈매기, 천국, 이단 등의 표현에서도 의인화를 통한 종교적 상징주의가 드러난다. 최고의 숙련되고 자유로운 비행을 통한 자아성취의 신화, 칸트적인 질문과 배움에 대한 열망,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저 넓은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창공을 향해 홀로 저 높이 나는 조나단의 생과사를 넘나드는 고도의 비행술 훈련과 실존적인 상황 등이 묘사된 서사를 통하여 작가 바크, 그리고 바다 갈매기들의 생생한 이미지를 포착하여 카메라의 눈으로 찍은 사진 이미지들을 담은 사진작가 문순,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적 상징들은 이 서사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조나단의 가르침의 상징은 번지르르한 돌맹이가 되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무 오래된 돌이나 있어도 될 터였다. 비행의 환희를 가르치러 온 새의 상징으로는 더할 수 없이 최악이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적어도 무리에서 중요한 갈매기들은 그랬다.

화요일이면 모든 비행이 중단되고, 활기 없는 새들이 모여들어 서서 ‘고위 부족 제자’의 암송을 들었다. 몇 년 사이에 암송이 정착되어 단단한 교리로 굳어졌다..... 사암을 쪼아 슬픈 보라색 조개 눈을 박은 조나단의 동상이 해안을 따라서 세워졌고, 모든 돌무덤과 모조 돌무덤에서 이것은 돌이 상징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200년이 지나지 않아 성스럽다는 간단한 말로 일상의 수행에서 조나단의 가르침은 거의 다 빠졌고...조나단의 이름으로 생긴 의식과 의례는 극단적이 되었다. 생각하는 갈매기라면 돌무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에서 항로를 바꾸었다.... (공경희 역 126-27)

제4부의 주인공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갈매기 앤서니”(공경희 역 130)이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제1부에서 조나단의 칸트적인 질문은 “배울 게 있지만 그 게 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갈매기 앤서니의 또 다른 질문으로 변주되고 있다. 고위 제자에 의해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갈매기 앤서니는 비행에 대하여 인생에 대한 일종의 은유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은 기적이 아니죠. 그것은 따분해요. 제자님의 위대한 조나단님은 오래전 누군가 지어낸 신화이며, 약한 자들이 현실 그대로의 세상을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동화지요”(공경희 역 131). 어린 앤서니는 기존 사회의 “의례와 의식을 거부”(공경희 역 136)하며 자신의 진로를 올바로 선택하여 행동에 나서려 한다. 이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갈매기들은 앤서니의 길을 따라, “조나단의 이름을 덮은 의례와 의식을 거부한 채 자신의 길을 갔고, 그렇게 행동하는 젊은 새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들은 삶의 허망함으로 애달팠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정직했고, 삶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만큼 용기 있었다”(공경희 역 136). 여기서 21세기 초 지구의 생태계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갈매기들과의 연대의식은 지구 생태계에서의 공존과 공생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과 행동의 연대를 연관 지을 수도 있겠다. 플라 스틱 세상으로 불리는 바다 세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존을 위한 실존적 상황일 것이다. 이 서사의 주인공인 갈매기는 다른 조류, 즉, 까마귀, 까치, 참새, 매, 독수리, 아니면 다른 동식물일 수도 있다.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이 공생의 연결고리로 상호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연생태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언제나 자각하고 인식해야 할 21세기 초의 지구의 실존적 위기상황이다.

『갈매기의 꿈』은 구성상 그림/사진 이미지들의 연속작품으로 시각적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감상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사이에 글이 서사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사이사이의 글들은 사진/그림 이미지의 언어적 표출로써 그 내재된 의미, 즉, 심층 구조는 이들 사진/그림 이미지들과 함께 실제 갈매기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라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마음속 깊이, 그리고 우리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글 번역판과 영문 원본 간의 서사 글과 사진/그림 이미지 간의 배치에 있어서 활자 글의 배치가 불일치한 데가 몇 곳 있는 게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글과 사진/그림 이미지의 나열은 본래의 제 위치에 있어야 의

미전달 상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4. 생태학적 상상력과 공존·공생을 위한 우화

독자들은 의인화된 갈매기의 서사를 통하여, 칸트의 첫 번째 질문인 “나는 무엇을 아는가?”에서 비롯된 철학적 갈매기의 비상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이어진 비행 기술의 습득과 훈육, 그리고 ‘사랑’의 전파로 “나는 무엇을 바라도 되는가?”, 마지막으로 다시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 동참하며, 사회적 연대나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할 수도 있다. 바다 갈매기들의 일상이 상업용 항공기 파일럿이자 작가인 바크의 상상력을 통해 철학적 갈매기의 비상을 담아 탄생한 내러티브는 제4부의 재발견으로 인하여 또다시 재탄생된다. 이 중편소설이 기존의 마지막 제3부에서 벗어나 또 다른 피날레인 제4부로 인한 재구성은 의인화된 어린 갈매기 앤서니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과정을 담은 제1부에서 제2부와 제3부까지 이어져 온 철학적 갈매기의 비상이라는 주제적 구성으로 바라볼 때,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더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21세기 초에 이른 오늘날, 여태 종교적 매너리즘이나 의례 중심의, 또는 이단적인 집단의 이기적 공동체를 넘으려는 자유 의지의 표출이며 저항정신의 발현이다. 제1부 시작 부분에서 어린 바다 갈매기 조나단은 홀로 또는 몇몇이 날아올라 하루하루의 힘든 훈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정신의 고양을 암시하는 놀라운 비행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제4부의 재발견으로 작가 바크는 창공으로 날아올라 영혼의 고양과 천국의 재발견에 이르고자 하는 순수한 앤서니의 비상으로 천상에 오른 조나단의 자유의지를 새로이 자리매김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존재의 ‘본체적’ 의미가 희미해질 때, 자기성찰과 자아실현에 대한 칸트의 철학적 사고와 실천을 일깨워주는 교양소설인 『갈매기의 꿈』은 아퀴나스가 제시한 인간의 영혼처럼 영속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을 위한 우화이기도 하며 종교적 상징성도 띠고 있다. 하지만 생태학적 상상력

과 이의 실천, 자연, 동식물의 존재와 이들의 영속성, 달리 표현하자면, 신이 만들고 창조한 세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학과 이후 아퀴나스 등 사상가들이나 문필가들에 의해 수용되어왔고, 칸트에 의해 전제되기도 한 영혼불멸설은 그 본래적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기에, 21세기 초의 상황에 맞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즉, 인간과 영혼 불멸, 지구 환경의 위기와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종말 등 생태학적 종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이 서사는 생태학적 차원에서 해석되고 독자들과 새로이 만나야 할 것이다.

이 서사의 마지막 대사는 앤서니의 질문에 대한 조나단의 대답으로, “존이라 부르게”(공경희 역 141) 이들의 천상에서의 영혼의 만남으로 자아성취를 암시하는 듯하다. 또는 앤서니 자신이 그리던 이상적 자아인 조나단과의 무의식적 만남을 작가 바크가 그의 소설적 상상력으로 구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데이지(Daisy Pay)를 이상화한 개츠비(Jay Gatsby)처럼, 일종의 개인적 환상이 실제의 영역을 뛰어넘어 나타난 정신적 현상 또는 착각인가? 그에 대한 해석은 독자 개개인의 경험과 상상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열린 결말이다. 결국, 제4부가 지닌 주제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중편소설의 제4부의 재발견과 서사의 새로운 피날레의 기능은 전체 서사 상의 대칭적인 구조를 성취하였으며, 보다 더욱 단단한 완성판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제4부의 소환은 1970년 첫 출간 이후 새로운 서사구조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철학적 사고로 정신적 비상을 하는 갈매기에 대한 이 우화는 종교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 아퀴나스가 언급한바, 소멸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아닌, 소멸하는 야수 또는 야수와도 같은, 신의 다른 창조물에 불과(Freeman 92-93) 한 존재를 묘사한 것이라면, 이 내러티브의 조나단, 플레처, 앤서니 등 바다 갈매기들은 그들의 전 스승인 설리번과 행의 정신적 영향력을 감지하지 못한 채 바닷가 저 멀리 창공으로의 비상과 함께 추락하여 바닷물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뿐일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천국 같은 만남과 재회를 하는 그들의 비상과 도약은 인간 영혼의 승리를 암시하는 서사이다.

르네상스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Roterdamus)의 『우신예찬』 (*Moriae Encomium*), 즉 영어 제목 *Praise of Folly*는 우신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우신이 말한다’(김남우 역 21), 즉, “Folly speaks ”(Desiderius 9)라고 시작되는 이 위대한 서사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유롭고 신랄한 사회적, 종교적 풍자의 형식과 내용으로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화살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의 소설가이자 비행사인 바크는 이 중편소설이 실제 인물이나 장소, 사건과는 완전 별개이며, 완전히 허구임을 작품 서두부터 밝히고 있다. 허구 속 주인공 공인 작중인물인 조나단은 그의 가족의 우려와 갈매기 부족장이 내린 ‘추방자’라는 사회적 형벌을 맞닥뜨리지만, 실제 인물인 작가 바크는 자신의 사회적 탈출구를 준비해 놓았다. 『갈매기의 꿈』은 ‘오만’의 죄를 뒤집어쓸 수 있는 절대 최상급과 시공의 초월(공경희 역 76-77), 또한 제4부의 종교적 의례와 우상화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논거를 담고 있다. 바크는 자유로운 영혼의 비행과 완벽 비행의 추구와 놀라운 성취를 담은 이 모험 서사를 최고조로 완성하기 위한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조나단의 이름으로, 또한 그의 비행사도인 플레처의 비행기술 전수로 제3부로 구성된 서사의 끝맺음을 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그보다 더 심각한 물질문명의 엄청난 피해, 지구 환경적 재앙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무기 사용과 도발의 위기라는 불안한 실존적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상존한다. 바크는 초판의 출간에 있어서 이미 써놓은 제4부를 제외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특히 앞선 제1부에서 제3부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4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자아완성의 신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메시지를 흠뻑 담아낸 제4부를 포함하면 갈매기 조나단의 자아 신화와 그의 비행사도인 플레처의 전승이라는 단일한 인상의 효과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급격히 변화한 21세기 초에 이르러 더욱 인간의 위기, 생태적 종말의 불안 심리가 심화하는 오늘날, 그동안 집안 한구석에 버려져 있던 제4부의 재발견은 작가 바크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켜 그의

작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의식을 재소환한 듯하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이미 생태학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구 생명체의 한 존재로서, 우리가 처한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는 갈매기를 의인화한 우화의 형식을 지닌 『갈매기의 꿈』의 제4부의 재발견과 서사의 재구성으로 인하여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 바크는 개인의 수련을 중요시하고 내면과 영혼의 고양과 자아성취를 강조한다. 이는 외양에 치우쳐 남들보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물질적 삶의 풍요를 보장받고자 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행태를 조장하는 게 아니다. 개인 내면의 수련이 얼마나 힘들고도 소중하며, 필요한지를 이제 원숙하고 숙련된 작가인 바크는 제4부의 자신만의 자유로운 형식 속에 작가의 영혼의 긍정적이고 선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한다. 여기서 바크는 그의 철학적 우화를 통해서 우상화나 의례나 숭배 위주의 소극적, 간접적인 삶에 안주하는 인간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4부의 재발견은 조나단, 플레처, 앤서니로 이어지는 유대감과 사회적 메시지로 이들의 철학적 비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이 중편소설의 서사는 독자가 사 진작가 문손의 뛰어난 그림/사진 이미지들의 그림 이야기를 잘 관찰하면서 읽을 때, 글과 그림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전개와 호응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는 독자 자신의 절대 비행이기도 하다. 독자 자신도 독서의 과정에서 그의 상상력과 성찰, 명상을 통해, 제2부와 제3부, 그리고 제4부에서 새로이 반복되는 천국에서의 만남처럼, 독자의 내면적 자아 성찰을 위한 철학적 비상과 수련, 훈육, 절대 비행의 완성을 통해 칸트의 ‘본체적’ 세계로 진입을 예견한다.

## 인 용 문 헌

-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2000.
- 바크, 리차드. 『갈매기의 꿈』. 공경희 역, 현문미디어, 2015.
- \_\_\_\_\_. 『갈매기의 꿈』. 이덕희 역, 文藝出版社, 1986.
- \_\_\_\_\_. 『갈매기의 꿈』. 정현종 역, 文藝出版社, 1973.
-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박정태 편역, 도서출판서해문집, 2005.
- 사르트르, 장 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 이학사, 2008.
- 에라스무스, 데시테리우스. 『우신예찬』, 김남우 역, 열린책들, 2011
- 이태동. 「사랑과 개인의 자유추구, 자아문학」. 『갈매기의 꿈』, 정현종 역, 文藝出版社, 1973, pp. 117-23.
- 융, 카를 G. 외.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열린 책들, 1996.
- 장자. 『장자』. 오강남 역, 현암사, 1999
- 정호영. 『고등영문법』. 신아사, 1981.
- 카뮈, 알베르. 『시지프 신화』. 개정판, 김화영 역, 책세상, 2004.
- 피츠제럴드, F. 스콧. 『위대한 개츠비』. 제2판, 김육동 역, 민음사, 2010.
- Bach, Richard. *Jonathan Livingston Seagull*. Scribner, 1970.
- \_\_\_\_\_. *Jonathan Livingston Seagull: The Complete Edition*. Scribner, 2014.
- Camus, Albert.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Translated by Justin O'Brien, Vintage, 1991.
- Chung, Gil-Wha. “‘A Rose for Emily’: An Ambivalent Narrator in the Patriarchal Southern Community.” *The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Vol. 36 [『영미연구』, 제36집], 2016, pp. 109-33.
- \_\_\_\_\_. “The Subversive Voices Reversing an Oedipal Situation in William Faulkner’s ‘A Rose for Emily.’” *The International Study of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3 [『국제언어문학』 제33호], 2016, pp. 257-85.

- Desiderius, Erasmus. *Praise of Folly* [*Moriae Encomium* (1511)]. Translated by Betty Radice, Penguin Books, 1993.
- Freeman, Eugene, and Fr. Joseph Owens. *The Wisdom and Ideas of Saint Thomas Aquinas*. Fawcett World Library, 1968.
- Jung, Carl G. and M.-L. von Franz, et. al. *Man and His Symbols*. Aldus, 1964.
- Pamuk, Orhan. *The Naïve and the Sentimental Novelist*. Translated by Nazim Dikbaş, Vintage Books, 2011.
- Polk, Noel, editor. “*A Rose for Emily*”: *William Faulkner*. Harcourt College P, 2000.
- Warbourton, Nigel. *A Little History of Philosophy*. Yale UP, 2011.



## Abstract

### ***Jonathan Livingston Seagull: The Flight of a Philosophical Seagull and the Rediscovery of Part 4 and its Textual Rebirth***

Gil-Wha Chung  
Youngsan University

The personified storytelling of the protagonist Jonathan of *Jonathan Livingston Seagull* spreads out with its picture/photo images, which has a mystic metamorphosis motif while learning and developing through torture. Jonathan's dialogue with his mother that seems to narrate the Kantian philosophy is about knowledge well-known with his question, "What can I know?" Jonathan's philosophical flight is going to confront the existential situation that accelerates his conversion. Jonathan's fable is an expression of free will to escape from a comfortable life. It is a narrative of adventure about a being deserted in the universe, and today in the early 21st century, it invokes us an ecological imagination of how to confront the extreme state of environmental crisis and how to overcome it. This novella that conveys a lesson of an adventure of selfhood, or contains a fable of adventurous seagulls can be read from new perspectives from the situation of an era. Its topic sentence as a proverb, "The gull sees farthest who flies highest." has its Absolute Superlative whose deep structure we need to understand. Unlike its original English versions, only those of the Korean translation has its proverb with a picture/photo image, published by Munyechulpansa in 1973 and 1986 per se. In the Complete Korean Edition of 2015, the decorative sentence is finally excluded. This article involves a study on

incongruities in its construction between the narrative and picture/photo images, and the rediscovery of Part 4 and its effect.

**Key Words: a philosophical flight, an existential situation, the free will, the Absolute Superlative, incongruities**

논문접수일: 2022.05.16

심사완료일: 2022.06.09

게재확정일: 2022.06.15

이름: 정길화

소속: 영산대학교 서양조리전공 교수

이메일: gila88@daum.net